

우리의 언론¹⁾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

I

국제형사기구는 한 나라의 쿠데타를 통제하고 위기에 놓인 제국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무분별하고 악한 타성에 길들여진 오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저자들, 특히, 기자들이 위생기구를 결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들로 하여금 정치적 독가스로 오염되어 있는 대기를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이와 같은 위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확고한 신념도 없는 글쟁이며, 정신적 혼돈 가운데 진실을 망각한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새로운 위생기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충실한 인품이 요구됩니다. 이때의 충실함이란,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 혹은 적어도 자기가 속한 정당인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능이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해 감소한다고 생

1) 이 글은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의 『투쟁의 시간』에 수록된 「우리 언론」(Nuestro periodismo)를 옮긴 것이다. 이하의 모든 주는 옮긴이가 덧붙였다.

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은 작가의 도덕성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성당의 원형 천장과 모세 조각상,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속에서,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다채롭고 위대한 창조자로서의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작품 「십자가책형」을 감상하면서 조각가 벤 베누토 첼리니의²⁾ 잔혹성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호세 데 리베라의 그림 「성 바르톨로메의 순교」에서는³⁾ 화가의 도덕적 왜곡성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소」 악보 안에서 작곡가 로시니의 탐욕과 인색함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첼리니의 「십자가책형」

마찬가지로 과학적 진실의 탁월성과 철학적 방법론이 주는 장점은 이를 표명하는 이론가의 인격이 저급하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폄하되지는 않습니다. 다윈과 콩트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 자신이 범죄적이고 천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다윈의 진화론이 개연성에서 멀어지거나 콩트의 실용주의가 포괄할 수 있는 진실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술가와 학자는 스스로를 위한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내면적 사색 가운데 심취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작품을 고안하고 창조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술적 고양에 의하면, 사악한 영혼과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서도 훌륭한하고 아름다운 작

2) 벤베누토 첼리니(1500~1517)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르네상스 조각가이자, 메너리즘을 대표하는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며, 대표작으로는 청동상 「메두사의 머리를 든 페르세우스」(1545~1554)가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작품 「십자가책형」(Crucifijo, 일명 「그리스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룬 대리석 조각이다
3) 「성 바르톨로메의 순교」는 스페인 화가, 호세 데 리베라(1591~1652)의 1644년 작품이며, 육체적 고문을 당하는 잔혹한 순교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품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검은 숯덩어리가 전류에 관통하면서 활모양의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정치계에서 한 작품은 작가의 인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줍니다. 마치 결과 안에 원인이 드러나듯, 인격은 행동 안에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티에르의⁴⁾ 교활하고 잔인한 마음은 파리코뮌 진압사건 속에 그대로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에밀리오 카스텔라르의⁵⁾ 우유부단한 성격은 그의 허망했던 대통령 재임기간에 반영되었습니다. 원칙은 이를 변호하는 개인의 성품으로 인해 더욱 돋보이는 법입니다. 어떤 개혁안이 유익하고 이행 가능하게 보여도 개인의 신용이 실추되고 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곤 합니다. 반면에 개혁가가 종교적 사도와 같은 명성을 획득하면, 아무리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변혁안도 충분히 완수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결과물일지라도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에게 불신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의 인격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모든 공인은 의로운 체하며 과시하는 걸까요? 또한, 현장에서 한 손에는 귀중품을 쥐고 체포된 범인조차도 입술로는 범행사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절도와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I

위에서 언급한 공인 중에는 신문기자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는 행정적 업무를 책임지거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

4) 티에르(1799~1877)는 프랑스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 1821년 프랑스 기자로서 활동했고 『프랑스 혁명사』(1823~27)를 집필하여 명성을 얻었다. 1871년 나폴레옹 3세 몰락 후, 국민의회에 의해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발발한 1871년 파리 코뮌의 무산자정부를 탄압하여 내란을 수습하였다.

5) 에밀리오 카스텔라르는 무질서와 무정부 시절을 보냈던 스페인 제1공화국 시대의 4번째 대통령에 취임하여 4개월 동안(1873년 9월~1874년 1월) 재임했다.

나 우리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입니다. 사상과 실제적 사건의 영역에서 신문기자의 활동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책을 집필하는 저자가 한정된 수의 독자, 혹은 교양 있는 독자만 상대하는 반면, 기자는 대중 전체와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의 사상을 소개했다면, 내일은 그것을 강조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의 사상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뇌 속에 그의 생각을 주입시킬 것입니다. 그는 가장 단단하고 두꺼운 두개골에도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기자의 집요한 글쓰기의 위력 앞에서는 그 어떤 독선적이고 미신적인 생각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의회의 토론이나 판사의 법령이나 또는 군사적 반란으로도 실현할 수 없던 사안이 단지 한명의 기자가 쓴 간단한 논설로 인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중은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에게는 신문이 유일한 지적 양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날마다 일간지를 접하고 이를 차곡차곡 보관해 둡니다. 그들에게 신문은 정보와 의견의 전달자이자 좋은 친구가 됩니다. 한 권의 책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신해 한 장짜리 인쇄물을 넘기는 데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자의 엄중한 목소리 대신 대중의 비위를 맞추는 기자의 소리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문기자는 성직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타르드는⁶⁾ 펜 한 자루면 천명의 입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지식인들을 흥분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무장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문지상에 유포된 사상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대양 한복판에 우뚝 선 바위에 비유할 수

6) 타르드(1843~1904)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범죄학자. 주요 저서로는 『모방의 법칙』(1890), 『사회논리학』(1895), 『여론과 군중』(1901)이 있으며, 그에 의해 ‘심리학적 사회학’이란 방법론이 확립되었다.

있습니다. 이 바위의 실체를 추적하고자 할 때, 심해를 측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언론을 강에 비유하면, 처음에는 분산된 물줄기를 내어 제각기 다른 의견을 포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고 공론이란 형태를 갖추어 마침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타르드는, “문학이 한 국가의 존재를 증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신문은 국민적 생명력을 자극하고, 정신과 욕망의 내적 영역에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거대한 변동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언론은 한 민족의 공동체적 정신세계를 형성해 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인류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전신(電信)과 신문의 보급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건이나 흉악한 범죄 행위가 일어난 후에는 이에 대한 칭송 혹은 비난이 전 세계에 일시적으로 전달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지구의 심장박동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어느 특정 도시에 속한 이웃이라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주 속의 관대한 주민이라는 인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간지에는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한 곳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테네 광장과 로마의 중앙광장, 원형경기장과 전쟁터, 식물원의 공기와 저수지의 악취, 또는 연극 피날레를 밝혀주는 빛과 생체해부에 쓰이는 수술용 메스 등,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삶의 축소판인 양,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비극과 희극의 혼합체를 포괄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간지 안에 초월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언론의 힘은 군주, 의회, 사법관, 심지어 국가보다 더 강합니다. 언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문이 부재하는 현대사회나 기관차 없는 화차를 상상해보기로 합시다. 이러한 비유가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언론이란 문명화된 사회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석유, 가스, 혹은 전기를 제거한다고 해봅시다. 가장 문명화된 도시조차도 도적으로 가득 찬 숲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같은 논리

로, 우리가 신문을 없애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포악한 압제자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즉 프랑스로 칭하는 독재자 집단의 첫 번째 소망은, “황제의 위대한 침묵”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통속 문학과 상투적인 문화 양식을 퍼트리고, 대중의 지적 태만을 선동하며, 개인의 창의성을 잠재우거나 말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간지로부터 특정한 자극을 받기 전까지 지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전자램프가 켜지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에서부터 전류를 보내야 하듯 말입니다. 일간지를 읽는 독자들은 정신적이고 언어적인 요소 뿐 아니라 신문지면의 크기, 기사의 단(段) 수, 활자의 모양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어릿광대와 같은 기자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들은 정의에 관한 글은 쓰지만 이에 대한 통찰은 없으며,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간주하는 반면 사고의 수준은 저급하고, 큰 소리로 외치긴 해도 논리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어에 의해 때려눕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가장 공허한 언어에 도취됩니다. 인류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서, 소리가 가장 큰 북을 쫓아가는 법입니다. 이로부터, 평범한 일상 언어에 의해 운행되는 거대한 언론의 순환체제가 형성됩니다.

파리의 『피가로』지에서 런던의 『타임』지를 거쳐 『뉴욕 헤럴드』에서 『콜로니아 정기간행물』까지 살펴보면, 이들 중의 몇몇은 오직 판매를 위해 존재하는 구멍가게나 온갖 규모의 거짓말을 모아둔 다락방으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가릴 것 없이, 국가 예산안에서 특정 금액은 공식비공식 기자들에게 할당됩니다. 이른바 “파충류 자금”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카보우르와⁷⁾ 비스마르크는⁸⁾ 이탈리아와 독일에 대한 국제 언론사의 호의와 묵인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고백했습

7) 카보우르(1810~1861)는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이탈리아 통일의 지도자.

8) 비스마르크(1815~1898)는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1871년 2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수상이 되었다.

니다. 만일 어제 발생한 특정 사건을 4~50 종류의 신문들을 통해 접했다고 합시다. 만일 사건이 정부의 정책이나 제정적인 이득과 관련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가 어느 인물의 본성을 탐색하고자 할 때, 일상적인 신문지상의 정보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신문은 한 민족의 심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을 둘러싼 진실을 판정하고자 할 때,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신문기자는 자신의 ‘진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진실이 언제나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푸예는⁹⁾ 글에 대한 미신적 숭배를 안타까워합니다. 평소 애 그다지 대답하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았던 에밀 졸라는¹⁰⁾ 자신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이 파리의 『피가로』지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공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파로 붐비는 거리 한 복판에서 길거리의 미치광이나 술주정뱅이가 우리를 향해 무례한 말을 퍼부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침착하게 가던 길을 향할 것입니다. 반면에, 위의 열간이나 주정뱅이가 어느 일간지의 칼럼에서 우리를 비방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평정심을 잃을 것이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명예 훼손의 정도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기인했을 때 더욱 해롭습니다. 익명성은, 그것이 광인의 고함이든 신사의 주장이든, 공적인 의견의 결과물로 보이게 합니다. 『돈키호테』에 나오듯이, 산손 카라스코 학사를 보고 ‘백월의 기사’로 착각할 수 있고, 갑옷 안에 갇힌 생쥐 소리를 전쟁 용사의 목소리로 오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¹¹⁾

“말은 사라지며, 문자는 남는다”라는 표현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님

9) 푸예(1838~1921)는 프랑스 철학자, 사회학자이다.

10) 에밀 졸라(1840-1902)는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이다.

11)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2부 68장에 등장하는 산손 카라스코는 백월의 기사로 변장하여 돈키호테와 결투를 한다. 돈키호테는 결투에 진 조건으로 편력기사로서의 삶과 상상의 여인 돌시네아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쇄물에 노출된 거짓과 무지가 입으로 내뱉어진 거짓과 무지함과 똑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일간지에 인쇄된 문자에 대한 신성한 경외감을 간직하며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거주한 신과 여신이 모두 사라진 오늘날에는 술의 신과 활자의 여신이 우리 사회에 거주하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III

진실과 정직이 부재된 페루의 수도 리마 일간지에는 악인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들은 일관되거나 명확한 의견 없이 찬반의견 모두를 변호하는 자며, 가장 혐오할 만한 불법거래를 이용하는 횡령꾼이고, 은행, 철도회사, 기선회사, 이 밖의 독점판매권과 이익금을 남용하는 기업들의 대변자입니다.

과연 리마의 어떤 기자가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자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산악 지방 태생의 보수주의자로 살던 리마의 기자는, 다음날 아침에 지롱드 혁명 당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독재군주 옹호자로 잠들었다가 이튿날 아침 무정부주의자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보수주의 신문사에, 극단적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 혁명 신문사에 기고할 수도 있습니다. 급진적 프리메이슨 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의 양식』 혹은 『성직자의 벗』과¹²⁾ 같은 가톨릭 잡지에 자신의 글을 기고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리마의 저명하다는 정치기자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분자들과 같습니다. 오늘은 고체 결정체를 이루는가 하

12) 페루의 대표적인 가톨릭 정기 간행물.

면, 내일은 액체, 그 다음날은 기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들을 보면 연민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곱사등이 어릿광대는 3~40년 동안 똑같은 저속한 농담을 반복하며, 똑같은 공중도약과 묘기를 보여주고, 뱃속에서는 언제나 촌스럽고 알록달록한 끈을 꺼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리를 홍보할 때는 죽음과 대지 사이에 맞붙은 전쟁을 통보하는 격입니다. 죽음은 이들을 땅속으로 밀어 넣고, 대지는 혐오감으로 이들을 거부합니다. 기자란 이득을 좇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언론은 원칙이 대신에 산업체라고 믿는 경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군국주의자에서 민주주의자로 변할 수 있고, 반군에서 정부군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탈바꿈할 뿐입니다. 마치 독사가 허물을 벗더라도 내부의 독성을 고스란히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마의 신문 기자는 광대일 뿐 아니라, 중세의 군인을 연상시킵니다. 중세의 군인은 금전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자는 장려금을 수여받거나 사적인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펜을 세웁니다.

진실과 정직이 결여된 곳에는 거의 언제나 극단적인 무지가 동반합니다. 나아가서 자만으로 가득 찬 무지는 불성실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영혼의 소유자라면 가르치기 전에 배우고, 모르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펜을 빌려 생각을 판매하는 행위가 범죄라면, 소유하지도 않는 지식을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전달하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발간된 여러 신문을 접해본 뒤에, 리마의 신문을 읽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예술 애호가га 느낄 법한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음악 애호가가 훌륭한 오페라를 듣고 홀에서 나오는 순간, 중국 음악의 날카로운 불협화음을 듣는 경우입니다. 굳이 먼 구대륙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보면에서 평가하자면, 우리나라의 6~7개의 여러 신문들을 합쳐서 하나로 간주한다 해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

간지 『나시온』이나 『프렌사』의 수준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사상의 영역에서는 칠레의 신문과도 그 수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산티아고의 『레이』와 경쟁할 만한 리마의 일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마에서는, 『디아리오』에 실린 논설이 『코메르시오』로 옮겨질 수 있으며, 『오피니온』에 출판된 글이 『비엔 소시알』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이런 변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편집인조차도 자신의 신문이 다른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해도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은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들이 평범하고 흔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의 몸 위에 다른 이의 머리를 바꾸어 놓는다고 합시다.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거대한 정치적 격동기나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시기에 흔히 일어납니다. 이 시기의 여러 일간지는 다른 출판사에 실린 글을 재생산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만일 처음으로 펜을 든 작가가 이후 다른 이들과 같은 글을 쓸 것이라고 미리 예견된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글쓰기에 몰두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하고도 편리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동일한 약제를 취급하는 판매자는 같은 광고를 반복하고, 날마다 같은 싸구려 물품을 파는 장사꾼은 동일한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캄포아모르의¹³⁾ 싯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모든 것은 하나이며, 모든 것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처럼, 기자들에게는 굳이 종교적 금식과 소화불량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달콤한 완곡어법을 첨가한다면, 반정부주의자와 친정부주의자 간의 구별도 지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노파가 충돌 사고로 머리가 깨졌다고 하면, 그 책임을 볼테르와 루소에게서 묻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악덕의 원인이 이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에 대한

13) 라몬 데 캄포아모르(1817~1901)는 스페인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영예는 신에게로 돌렸는데, 신은 기력이 넘치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긍정적인 기운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반정부주의 기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나병과 같은 질병이 생기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친정부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페루의 람바에케 지방의 논경지에서 기름진 작물이 재배되거나 푸노 지역의 숫양이 산 후안 지역으로 이동하여 출산기 동안 두 배의 이득을 얻게 되면, 정부가 그 모든 소득을 생산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밀가루 덩어리를 앞에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세우며 다투고 견제합니다. 유일하게 정부는 엄숙한 자세를 유지하며, 신문지상에서 흘러나오는 일상적인 찬미의 소리를 감상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길거리 악사가 부르는 유치한 노래를 마치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된 국민 교양곡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요소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란 설득하기 쉬운 두뇌를 가진 소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양손에 점토를 가지고 있듯이, 사람들의 뇌를 반죽하고, 본인이 내키는 방식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주도적인 용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외과의사에게 완벽한 청결함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기자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사선생님, 당신의 병부터 먼저 치료하시오”라고 합니다.

리마 일간지의 앞날을 전망할 때, 굳이 과장된 비관주의나 부정적인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발전에 대한 희망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도 리마에서 긍정적인 사례가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족을 인물의 유형에 비유할 수 있다면, 페루의 아레키파 도시는 용맹스런 군인입니다. 소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가, 온몸을 피와 알코올과 화약 냄새로 범벅된 채 돌아오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 리마는 담배를 입에 물고, 술잔을 비우며, 흡투성이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늙은 여인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노파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며, 때로는 현실 타협적인 어머니로, 때로는 투쟁이로, 그리고 때로는 수도원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갑니다.

[정수현 옮김]

정수현 - 서울대학교 강사